

제2강의(7월13일)



'역경과 축복' 야곱과 열두아들

성정바로성당

행복한 매일

- 가. 바른 걸음
- 팔자를 고치세요
 - 가슴을 펴고 배는 당기고 발은 살며시
 - 턱은 당기고 눈은 위로
 - 엄지발가락 밑과 뒷꿈치 안쪽
 - 양팔은 펴고
- 나. 들숨날숨
- 다. 좋은 생각과 말
- 라. 성경묵상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우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 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하자, 에사우는 맹세를 하고 자기의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그러자 야곱이 빵과 불콩죽을 에사우에게 주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서는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우는 맏아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25,2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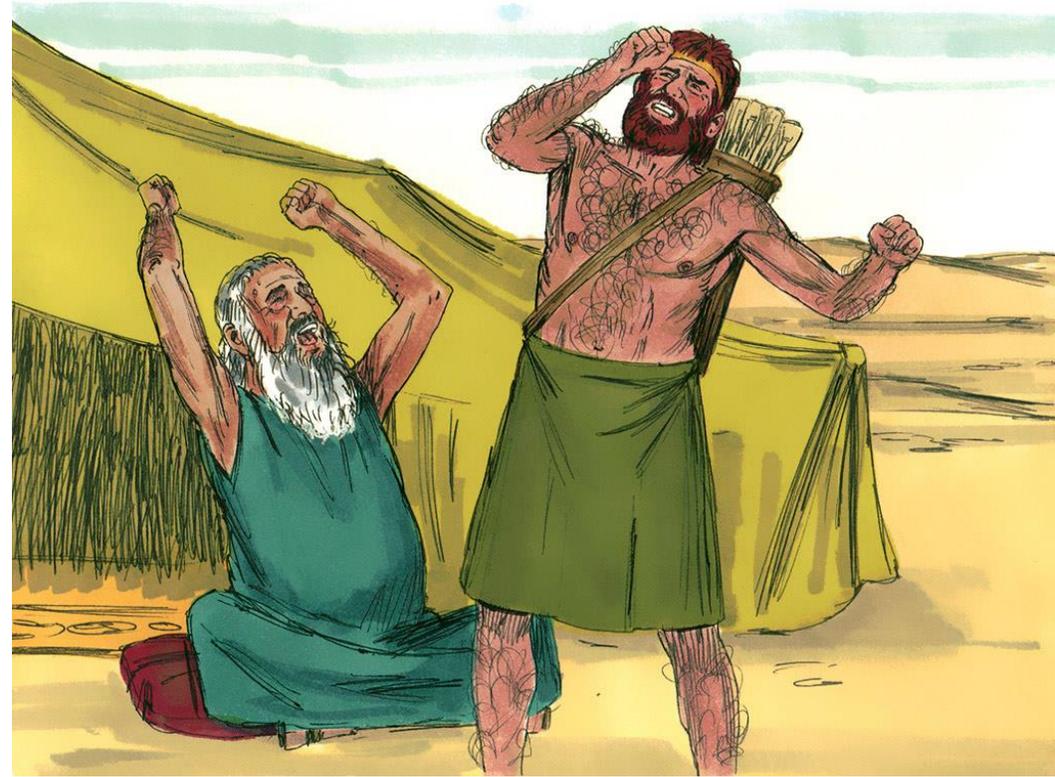




The Sifted Christian, 야곱이 아버 이사악을 속임(창세 27)

<야곱이 에사우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 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에 아우 야곱을 죽여 버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레베카는 큰 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 놓고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의 형 에사우가 너를 죽여서 원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27.41-43)





Jacob's Ladder, by Kathleen Anderson, 1995.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야곱은 브에르 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의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28,10-12)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사악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28,11-15)



אל

하느님

בית

집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싸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창세 28,16-19)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칠 년 동안 일을 하였다. 이것이 그에게는 며칠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가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질파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을 얻는 대신 외삼촌 일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레아

루으벤(1)
시메온(2)
레위(3)
유다(4)
이싸가르(9)
즈불룬(10)
디나

질파

(레아몸종)
가드(7)
아세르(8)

라헬

요셉
(11)
벤야민
(12)

빌하

(라헬몸종)
단(5)
납달리(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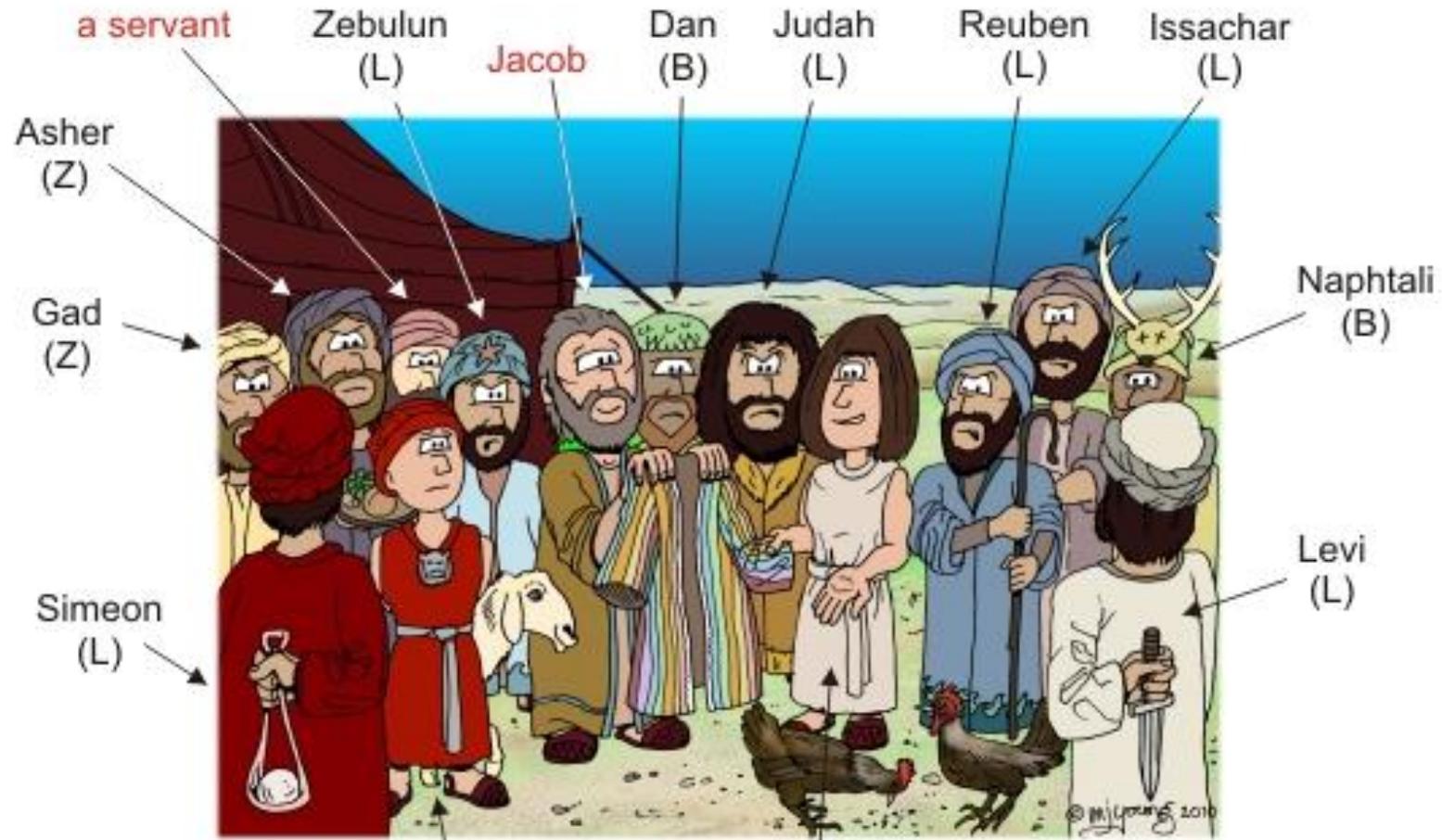
합환채

Mandrakes;

Mandragora officinarum 가나안에서는 밀 수확기에 익는다. 사과처럼 달콤하고 특유의 향이 있다.(아가 7,13) 뿌리는 인삼처럼 생겼다. 여자의 임신을 돕는 효능이 있다는 전래가 있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환채를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준다. 라헬이 이 사실을 알고 언니에게 이 풀을 요구한다. 레아는 그 댓가로 남편 요셉을 차지한다.(창세 30,9-16)



**Key to the parentage of Jacob's 12 sons
 (Genesis 35:23-26)**
 (L) = Leah
 (R) = Rachel
 (B) = Bilhah, Rachel's maidservant
 (Z) = Zilpah, Leah's maidservant

<야곱의 열두 아들>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불룬이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벤야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탈리이고, 레아의 몸종 질파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이다. 이들은 야곱이 파탄 아람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이다.

(35,23-26)



The Sifted Christian



www.shutterstock.com · 708052642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 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 단에게 큰절을 하였답니다.” (37,7)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열한 개가 나에게 큰절을 하더군요.”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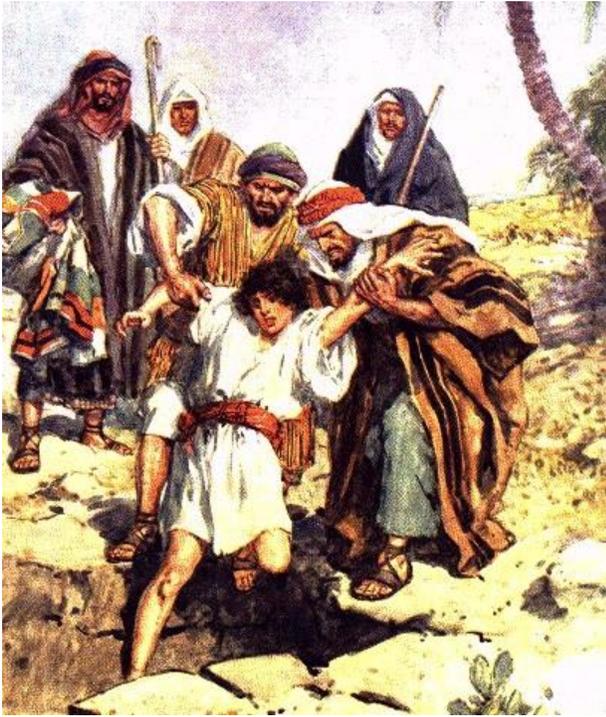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 살이 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열일곱 살 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의 아들과 질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37,1-4)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다>

스킴->도탄에서 형들을 만남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 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 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 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37,18-22)



The free Kraig Josiah Rice bible commentary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도탄으로 갔다가
미워하던 형들에게
물구덩이
던져진다.



biblestudyresources.org

형들은 '그래도 우리 피붙인데'
하면서 손에 피를 묻혀 복수하기
보다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이스
마엘상인들에게 요셉을 은전 20냥
에 팔아넘긴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물구덩이에서 꺼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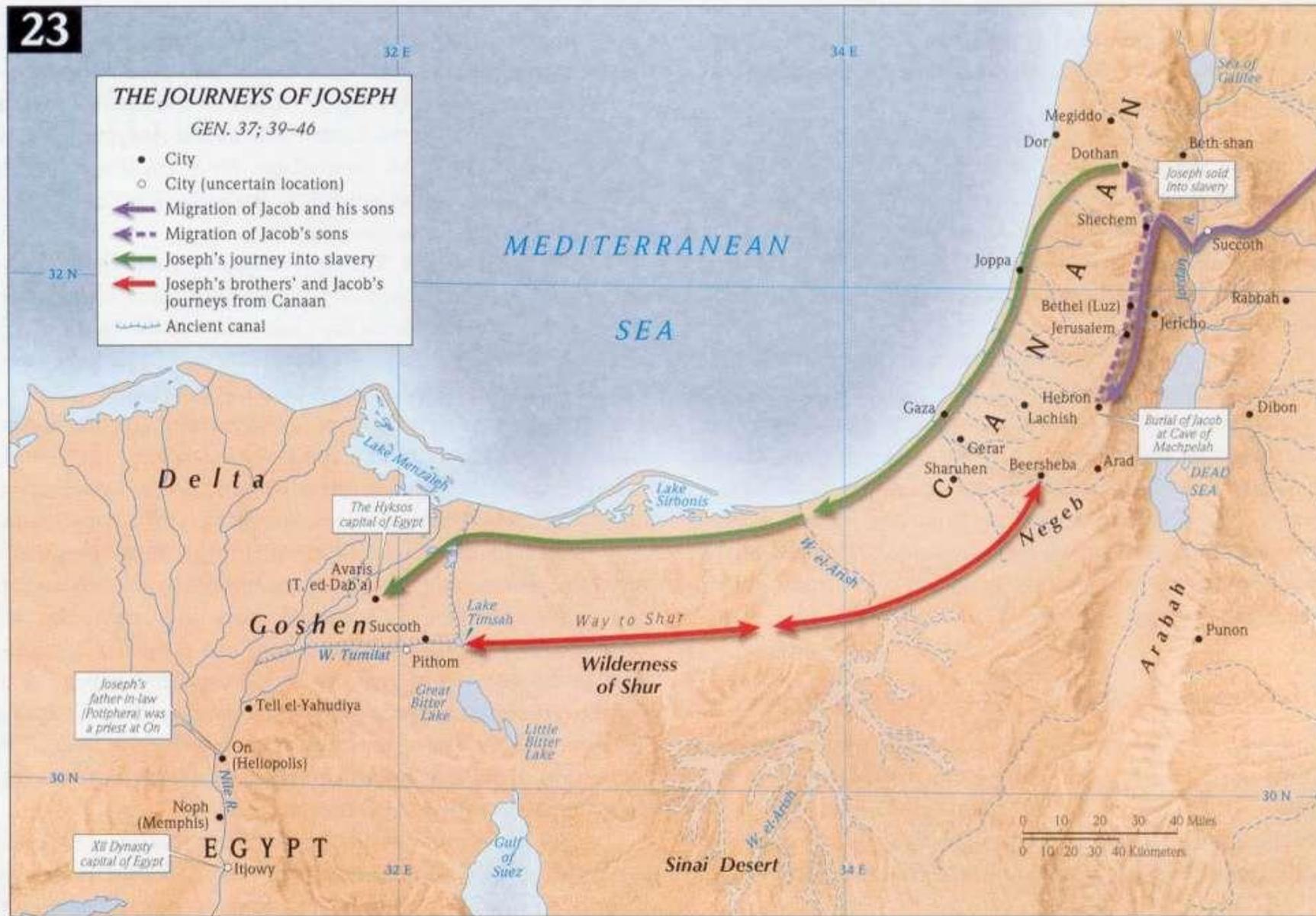


Phillip Medhurst Bible Pictures: 르우벤이 돌아와서 동생 요셉이 없는 빈 물구덩이를 보고 절규하는 모습



imgur.com/user/ig_christian_bible/
형들이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히고 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 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붙이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스무 닢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애가 없어졌다. 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요셉의 저고리를 가져다, 숫염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적셨다.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한편 미디안인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아넘겼다.(37.26-31.34.36)





그 여자는 날마다 요셉에게
졸랐지만, 요셉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곁에 눕지도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
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 안으
로 들어갔는데, 마침 하인들
이 집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자요!” 하
고 말하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39,10-12)



pcog.org/articles: Dennis Leap

주인은 "당신 종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처넣었다. 그곳은 임금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39,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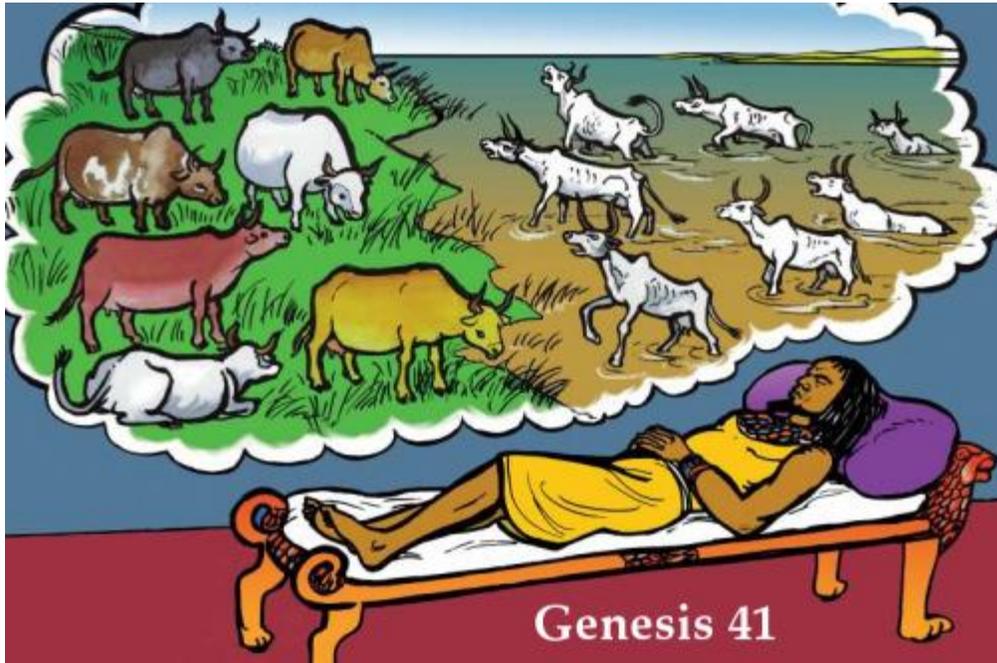
Genesis 40

Christian Wisdom - Tumblr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싹이 돋자마자 꽃이 피어오르고 포도송이들이 익더군. 그런데 내 손에는 파라오의 술잔이 들려 있었다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파라오의 술잔에다 짜 넣고는, 그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려 드렸네.”(9-11)

“나도 꿈에 보니 내 머리 위에 과자 바구니가 세 개 있었네. 제일 윗 바구니에는 파라오께 드릴 온갖 구운 빵이 들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쪼아 먹고 있었네.” (16-17)

헌작시종과 제빵시종



Christian-wisdom.tumblr.com/

파라오의 꿈:
7마리 살진 암소와 7마리 야인 암소
(41,1-4)



파라오의 꿈: 좋은 이삭과 마른 이삭
(41,5-7)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해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일곱도 일곱 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41,25-26)

그 뒤를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암소 일곱 마리도 일곱 해를 뜻하고, 속이 비고 샨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기근이 들 일곱 해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보여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파라오께 아뢴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41,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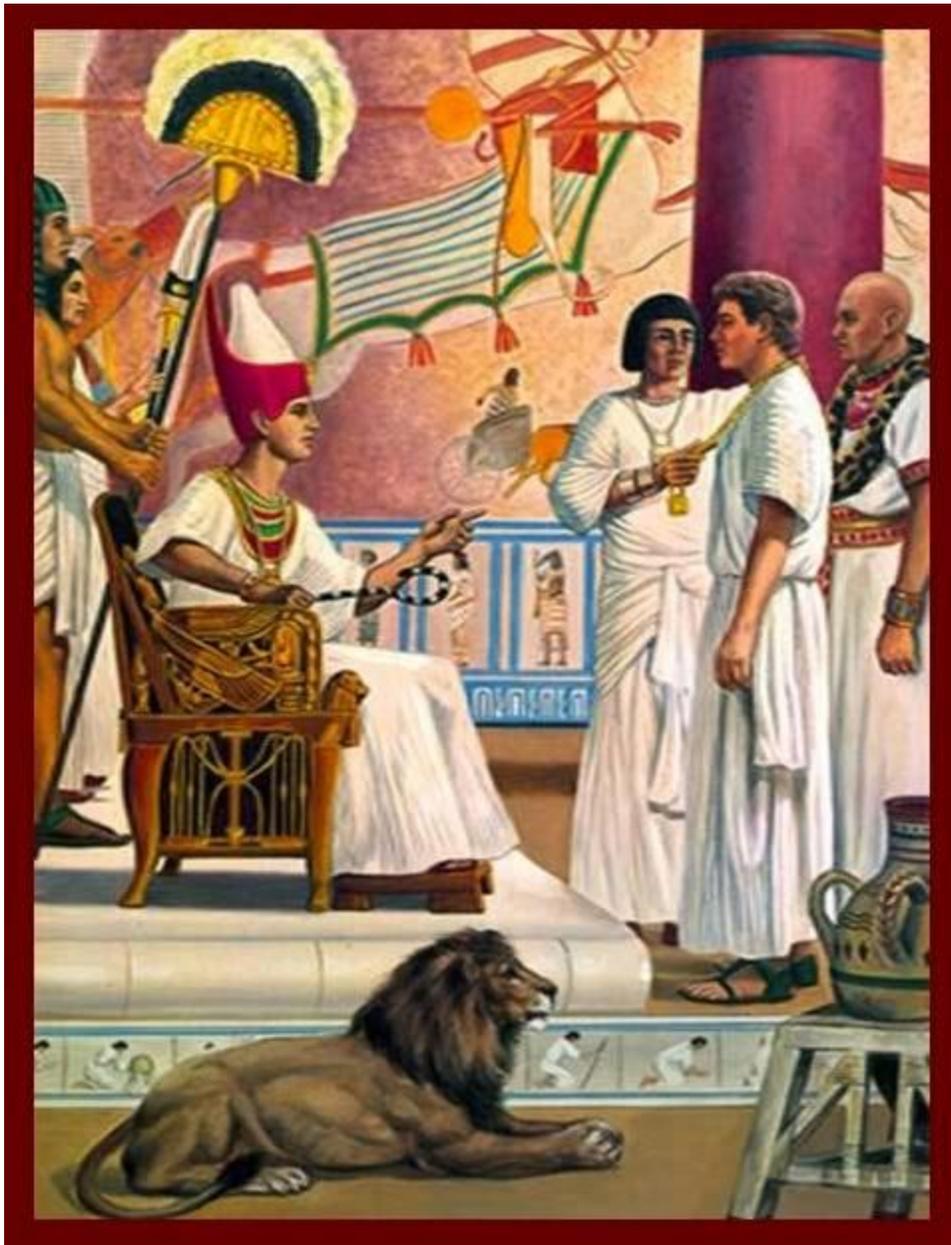


CORNELIUS (1783-1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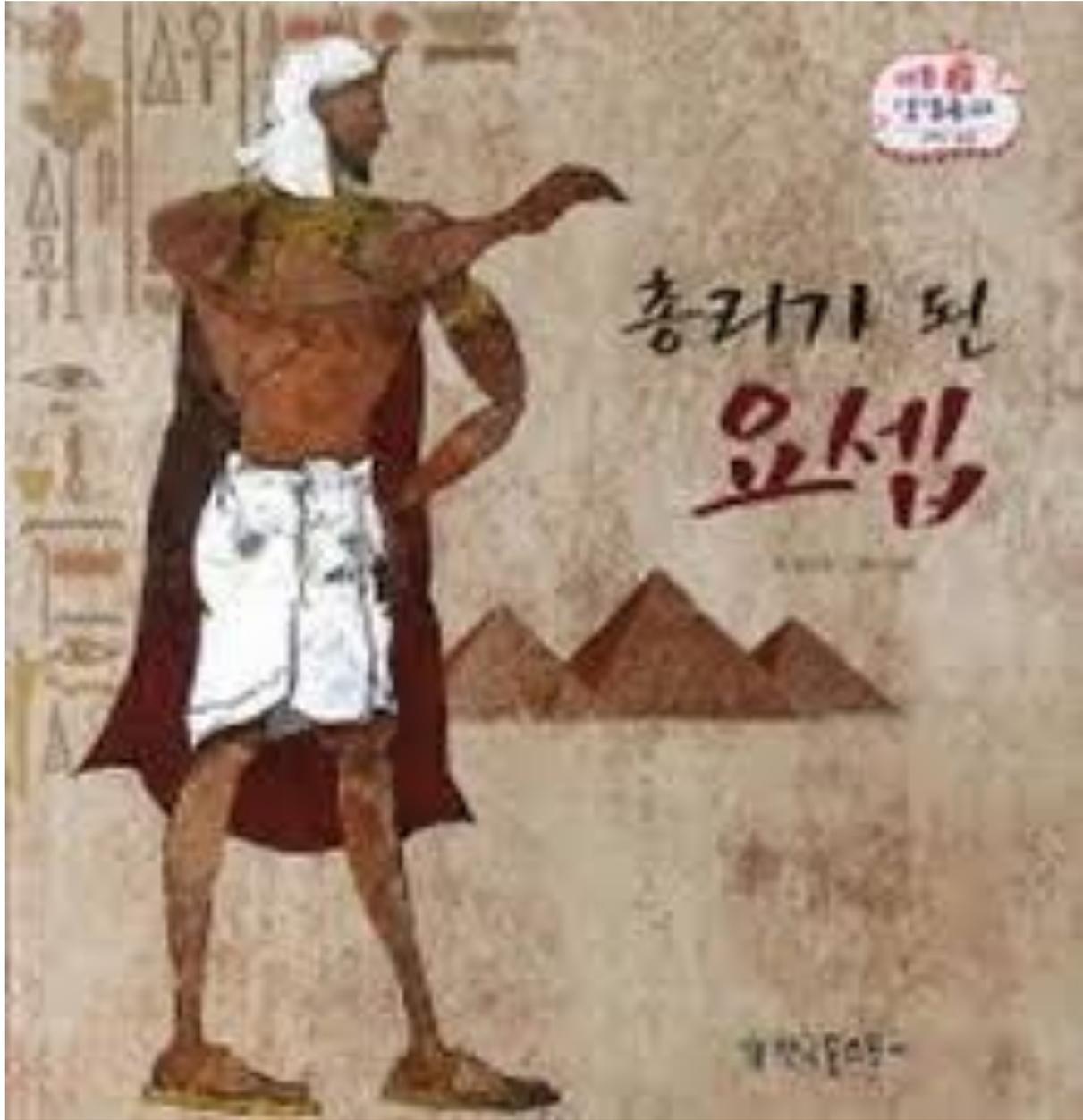
파라오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앞으로 오게 될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
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일곱 해 동안은 기근이 들
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는 전에 들었던 그 모든
대풍이 잊히고, 기근이 이 땅을 고갈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렇듯 뒤따라오는 기근이 하도 심하여, 이 땅에 대풍이
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조차 없을 것입니다. 파라
오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느
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
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41,29-32)

파라오께서는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대풍이
드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거둔 수확의 오분의 일
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
로 올 좋은 시절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들이게 하시고,
파라오의 권한으로 성읍들에 곡식을 쌓아 갈무리하게 하
십시오. (41,34-35)



“내 집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요. 나는 왕좌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름이요.”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두오.” 그런 다음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는, 아마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41,40-42)



요셉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
에 섰을 때, 그의
나이 서른 살이
었다. 요셉은 파
라오 앞에서 물
러 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돌
아다녔다. (창세
41.46)

요셉은 형들의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형들 앞에서 목 놓아 운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45,4-5)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시어, 여러분을 위하여 자손들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은 이들의 큰 무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45,7)

그리고 요셉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온 이집트 주인으로 세우신 사실과 아버지를 초청한다는 말을 형들에게 전한다. 그리고 형들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함께 울며 이야기를 한다.





<야곱이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난다>

[The Prodigal Son and the Son of Jacob
| Catholic Answers.com](http://CatholicAnswers.com)

야곱이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향하며 브에르 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에서 극적인 부자 상봉을 한다.

“야곱이 열 두
아들들을
축복하다.”



(Edwin Dalton 1980)

JACOB BLESSING HIS TWELVE SONS

BY EDWIN DALTON

하느님께서서는
부끄럽고 미움과
갈라진 사람들의
고통스런 관계를
용서와 화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요약>

야곱이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향하며 브에르 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느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극적인 상봉을 하고 긴 여정의 이야기가 12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으로 맺는다.

“하느님께서서는 얽히고설킨 긴 역경과 고통의 이야기를 용서와 화해, 구원으로 이끄신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부족한 존재이기에 ‘돈 욕심’, ‘명예 욕심’, ‘세상의 쾌락 욕심’의 유혹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유혹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끈질기게 시 때도 없이 인간을 괴롭히며 번거롭게 한다. 이미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마다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시지만 인간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는데도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시지 않고 ‘복을 내리십니다.’(창세 1,28)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스럽고 절대적인 12지파의 기원을 보면 인간적인 처세술이 뛰어난 야곱과 네 부인들(레아, 라헬, 질파, 빌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결국 형들은 자신들을 위해 토탄이라는 먼 곳까지 찾아온 막내 요셉을 질투에 눈이 어두워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전 스무 닢에 팔아넘긴다. 맏형 르우벤도 요셉을 살려주고 싶지만 동생들 눈치를 봐야하는 분위기이다.(창세 37,21-22.29-30)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부추기며 살아야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서로를 비판하며 상처와 고통도 주며 살고 있다. 야곱의 12아들들과 하느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너그러움과 관용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로남불’,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못 보는 신앙인’(마태 7,3-5)이 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며 자신을 향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삶의 교훈 ‘외유내강(外柔內剛)의 가르침을 새기며 하느님의 은총이 머물수 있는 너그러움의 큰 그릇이 되어야 하겠다. 진리는 바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외침보다는 ‘그럴 수도 있어!’라는 너그러움을 지닌 우리의 넉넉한 마음, ‘그 경우에는 나도 그랬을거야!’라는 자신을 낮추고 포함하는 마음,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주님의 너그러움을 닮는 행복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야곱의 12아들들과 축복이 주는 깨달음과 가르침이다.